

#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sup>\* \*\*</sup> — ‘다름’이 아닌 ‘같음’을 바탕으로 —

오정미<sup>\*\*\*</sup>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통한 공감교육 |
| II. 상호문화교육에서 공감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 IV. 결론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다름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상호문화교육의 방향과 달리 문화 간의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을 모색하고자 ‘공감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공감교육이란 다르다고 생각한 타문화 혹은 이문화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고, 같음을 통해서 나와 너가 수평적으로 같다는 의미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교육을 실현하고자 한국,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에서 전승되고 있는 ‘트릭스터담’을 소개한 후 트릭스터담을 통해 실현할 공감교육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설화 속 트릭스터는 자기중심적 삶의 욕망을 실현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똑같은 인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케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트릭스터가 주인공인 트릭스터담은 마치 별거벗은 임금처럼 사람들이 서로의 민낯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욕망, 상처, 치유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함께 교감하게 한다. 트릭스터담을 통해 경험하는 인간의 상처와 욕망 그리고 치유라는 다층적인 감정은 공시 및 통시적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6082870).

\*\* 이 논문은 제31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20.11.28)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학술연구교수, gina2004@naver.com

로 모두가 공통의 삶을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즉 설화를 통해 사람들은 문화 간의 차이보다 삶의 같음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공감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인 것이다.

트릭스터담을 통해 공감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모색한 것은 최종적으로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단초를 열기 위함이었다. 문화 간의 다름뿐 아니라 같음에 주목한 상호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인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방향으로, 긍정적인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상호문화교육, 공감교육, 다름, 같음, 설화, 트릭스터담, 다문화교육

## I. 서론

한국의 상호문화교육은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을까. 선행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 목표는 현재 한국의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고,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방안의 상호문화교육 중 문학으로 접근하는 상호문화교육에서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교육 목표를 검토한 후 현재의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4년 이내에 문학으로 접근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에는 신승혜<sup>1)</sup>와 김지혜<sup>2)</sup>의 연구가 있다.

①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주의에 기반하여 학습자들의 문화 간 이해 능력, 즉 상호문화능력 개발을 목표로 한다. 상호문화능력이란 문화 간 접촉 상황에서 개인이 문화간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상호 문화적 맥

1) 신승혜, 『신화를 활용한 결혼이민여성의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의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2)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락에서 적절하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②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며, 상호문화역량이란 주체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공감할 줄 알고, 그들과 협력적인 태도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sup>3)</sup>

학술지 논문에서는 선주원<sup>4)</sup>, 김정은<sup>5)</sup>, 이성희<sup>6)</sup>, 장현정·우신영<sup>7)</sup>, 조영미<sup>8)</sup>가 문학 속에서 실현하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9)</sup>

①상호문화적 감수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을 지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물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②상호문화에서 동질적 결합에 대한 욕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질성으로 인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표면과 이면의 사유를 통해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생성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③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상호문화능력은 타인의 문화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아는 것,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에서 비롯된다. ④소설교육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타문화에 대해 공감하는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적 설계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⑤상호문화 감수성은

3) ①신승혜, 위의 논문, 3~4면. ②김지혜, 위의 논문, 1면.

4) 선주원,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과 학습 활동』, 『국제이해교육연구』 12-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6.

5) 김정은,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6) 이성희, 『다문화시대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구비문학 읽기』,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7) 장현정·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8) 조영미,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대만 대학교의 부전공 과정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79, 이중언어학회, 2020.

9) 상호문화 감수성, 상호문화 능력과 같은 다양한 표현도 상호문화교육의 일환으로서 함께 검토하였다.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맥락 내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 및 인식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수정, 개발하는 정의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다.<sup>10)</sup>

학위논문과 학회지에서 발표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으로 ‘다름’, ‘낯섦’, ‘차이’에 주목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주로 교육 목표를 두고 있었다. 상호문화교육이 문화간 차이 혹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다름’, ‘낯섦’, ‘차이’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이해, 소통, 협력 등에 교육 목표를 둔 것은 현재의 전형적인 연구 방향이다.

그런데 다름과 낯섦 혹은 차이 속에서만 상호성과 간문화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일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과 개인 나아가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오히려 같음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상호성과 간문화성을 구현하는 상호문화교육은 새로운 교육 대안이 될 수 없을까. 특히, 유럽의 다문화사회와 다른 한국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좀 더 다양한 교육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정 단위의 이민과 이주노동자가 중심인 유럽의 다문화사회와 달리 한국은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편입하는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사회의 중심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유럽의 이론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닌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문화 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다름’, ‘낯섦’, ‘차이’에 주목하는 상호문화교육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같음’, ‘익숙함’, ‘동질감’에 주목하는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로 다르다는 의미의 타문화와 이문화라는 경직된 사고 속에서 벗어나 통시 및 공시적인 관점

10) ①선주원, 위의 논문, 95면. ②김정은, 위의 논문, 202면. ③이성희, 위의 논문, 340면.

④장현정·우신영, 위의 논문, 760면. ⑤조영미, 위의 논문, 254면.

에서 상호성과 간문화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름과 낯센 대신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인으로서의 같음을 발견하여 상호성과 간문화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국적뿐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람 대 사람으로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삶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고려해보면 다름을 강조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수용하는 차원보다 같음을 발견하고 같음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적, 인종, 성별, 나이 등을 뛰어넘어 닮아있는 서로의 삶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비롯하여 소설, 시 등의 다양한 텍스트에서 세계인으로서의 같음을 발견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같음에 주목하기 위하여 공통의 소재나 주제 혹은 서사를 가진 설화를 텍스트로 선정하고자 한다. 설화는 각국 문화의 뿌리인 원형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문학이어서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텍스트로서 인정받아 왔다. 그만큼 설화는 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하기에 용이한 텍스트로, 특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국적 문화를 비교하기에 설화만큼 좋은 텍스트가 없다. 게다가 설화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기에도 효과적이다. 설화는 어릴 적부터 접해왔던 익숙한 옛이야기라는 점에서 정주민뿐 아니라 모국을 떠나 한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된 이주민에게도 교육적으로 접근하기에 탁월하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이 최소한 5년 이상 자국을 떠나왔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어릴 적부터 친숙하게 알고 있었던 자국의 설화는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교육이 그동안의 문학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이었다면, 이 글에서는 서로의 같음 속에서 서로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하는 ‘공감교육’을 목표로 상호문화

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복합적인 공감 개념 속에서, 이 글에서 취하는 공감은 이문화 속 타자가 ‘나와 같다’는 정서적인 동일시로서의 공감이다. 정서적으로 동일시 되는 같음을 토대로 하는 공감교육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에서 전승되고 있는 트릭스터담을 통해 공감교육의 가능성과 상호문화 교육적 가치를 타진하고자 한다.

## II. 상호문화교육에서 공감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다름, 낯섦, 차이’와 함께 상호문화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가 ‘이해, 소통, 수용, 공감’ 등이다. 이 중에서 같음을 토대로 가깝게 위치한 어휘가 ‘공감’이다. 또한 ‘Sympathy’와 ‘Empathy’로 사용되고 있는 공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공감이 상호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어휘이고 동시에 교육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느끼는 것’ 혹은 ‘내면을 느끼는 것’이라는 의미의 ‘Sympathy’와 ‘Empathy’는 모두 둘 이상의 사람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심리적 활동으로, 지금까지 문학을 통해 학습하고자 했던 공감의 의미가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도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아기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독자가 울고 웃으며 문학 속 주인공의 감정을 공감하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공감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이었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이문화 속의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공감 능력을 배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문학 속에서 학습하던 공감 능력을 상호 문화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하여 공감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세계인으로서의 같음을 발견하는 공감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처럼, 상호문화교육에서 교육 목표로 했던 공감은 대부분 ‘다름’ 속에서 구현되고 있었다. 조인실 외<sup>11)</sup>가 발표한 연구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공감이 어떠한 의미로서 구현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름을 바탕으로 한 공감교육

<1단계> 이야기에 들어가기: 모두 달라요.
<2단계> 이야기 살기: 달라도 괜찮아.
<3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달라서 아름다워. <sup>12)</sup>

조인실 외(2017)의 연구자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공감을 위한 내러티브 교육과정’을 구성한 바 있다. 교육과정으로 제시한 공감은 총 3단계로 다름을 바탕으로 구현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한 연구의 사례라기보다 다름이라는 틀 속에서 이주민과 정주민의 관계를 바라보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상호문화교육에서 ‘공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름에 대한 이해’로 쓰이고 있었고 다름에 대한 이해는 타인을 돕는 이타적 행위를 의미하며, 공감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름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이타성을 교육 목표로 하는 것이 공감교육의 현주소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같음을 바탕으로 한 공감교육은 이타성을 최종의 교육 목표로 두지 않는다. 다르다고 생각한 타문화 혹은 이문화 속에서 오히려 같음을 발견하고, 같음을 통해서 나와 너가 수평적으로 같다는 의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개인 및 문화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같음을 발견

11) 조인실 · 김세광 · 안지영, 『다문화 공감교육 실천 사례 연구-비폭력대화와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55,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12) 위의 글, 101면.

하고, 같음을 토대로 ‘우리’가 형성되는 공감대 형성을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로 하는 것이다.

[표2] 같음을 바탕으로 한 공감교육

<1단계> 다름 속에서 같음을 발견
<2단계> 같음 속에서의 우리 찾기
<3단계> 세계인으로서의 공감대 형성

이타성 혹은 시혜성으로 접근하는 공감교육 대신 국적을 초월한 세계인으로서의 같음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교육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공감의 의미, 즉 ‘나와 같다’와 같이 감정 및 인지적 깨달음에서 발현되는 공감의 의미를 토대로 한다. 사실, 나와 전혀 다른 대상을 통해 공감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이 밝힌 범죄 동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다. 대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수의 노랫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즉 공감을 형성케 하는 스토리이다. 이처럼 타자 속에서 나와 같음을 발견할 때, 감정 및 인지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감을 경험한다.

이처럼 이문화 속에서 ‘나와 같다’는 같음을 발견하는 공감교육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가진 선입견과 편견을 고려해볼 때, 존중과 이해라는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에 효과적인 것이다.

### III.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통한 공감교육

오랜 세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옛이야기가 설화이다. 세계 모든 나라는 각국의 고유함과 특별함을 가진 설화를



보유하고 있고, 21세기 다문화사회에서는 이러한 설화가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좋은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다.

설화가 보유한 문화성에는 보편적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함께 각국만의 고유함과 특별함이 존재한다. 그런데 각국의 고유함과 특별함이 보편적 세계관과의 사이에서 그 경계가 때로는 무의미할 때가 있다. 고유함과 특별함이라고 생각했던 각국의 문화가 국적 및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보편의 문화인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나의 것, 나아가 우리 민족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화 차원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고 세계인의 삶이었던 것이다. 세계 보편의 윤리관과 가치관이 우리 모두의 문화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지만, 다문화사회에서 다름을 강조한 나머지 때로는 그 상식적인 사실이 잊히곤 한다.

그래서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공통 소재이자 주제, 서사를 가진 각국의 설화를 비교하여, 다문화 속 이주민과 정주민 공통의 삶을 발견하여 같음을 바탕으로 한 공감교육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보편적 세계관, 예컨대, 효(孝), 충(忠), 열(烈)과 같은 윤리적인 공통 소재 혹은 주제 속에서 공감교육을 실현하지 않고, 낯설고 파격적인 서사의 설화 속에서 공감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즉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진 설화 대신 트릭스터라는 낯선 존재와 파격적인 서사를 가진 각국의 트릭스터담을 통해 공감교육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1. 트릭스터의 의미와 아시아 트릭스터담 소개

설화에는 트릭스터(trickster)라는 인물 유형이 있다. 트릭스터(trickster)는 남을 속이는 인물을 의미하는데 단순하게 사기꾼이라고 칭할 수 없는 설화에 등장하는 독특한 유형의 인물이다. 한국 트릭스터의 연구사를 살펴본 하은하의 연구에 의하면 트릭스터는 그동안 근대적 영웅, 탈사회적 인

물, 자기중심의 존재론을 실현한 인물로서 평가되어 왔다.<sup>13)</sup> 영웅이지만 탈사회적 인물이고 자기중심의 존재론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이다. 영웅이란 타자를 위하는 이타적 인물을 의미하는데, 트릭스터를 영웅과 함께 자기중심의 존재론은 본 것은 ‘도둑이자 경찰처럼 병립할 수 없는 관계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거짓말이라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영웅으로 본 것 자체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평가이다. 그만큼 트릭스터는 선과 악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유형의 인물이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인물이기도 한 것이다. 트릭스터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는 경계적 인물이 있다. 나수호가 제시한 경계적 인물이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경계에서 움직이는 인물을 의미한다.<sup>14)</sup> 예를 들면, 사회 구조 혹은 도덕적 체계 등, 인간이 만들어 낸 틀 안에 있지 않고, 안과 밖의 경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현재 경계적 인물이라는 트릭스터에 대한 평가에 많은 설화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신동훈은 나수호의 연구에 힘입어 다음과 같이 트릭스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런 경계성에 대한 관점은 트릭스터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설명해 준다. 하나는 그가 중심보다 주변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것. 이는 (영웅에 대한) 트릭스터의 왜소성을 확인시켜 주는 요소가 된다. 또 하나는 그가 기존의 체계나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인물이라는 것. 그 자유로움은 트릭스터 특유의 경쾌함과 자기중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트릭스터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의 자유로움과 자기중심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트릭스터를 영웅의 계승자 내지 변형으로 보는 논의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13) 하은하, 『<피aggio 하인> 설화의 변형을 통해 본 트릭스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4) 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5) 신동훈, 『유렵민담 트릭스터에 비취 본 방학중의 캐릭터 특성 연구』, 『겨레어문학』 51,

이처럼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의 트릭스터는 한국설화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전승이 되고 있다. 봉이 김선달, 방학중, 피쟁이 하인 등의 이름으로 한국의 설화 속에 트릭스터가 존재하고, 이 중에서도 방학중과 피쟁이 하인은 근대적 영웅과 탈사회적 인물, 자기중심의 존재론을 실현한 인물 그리고 경계적 인물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면이 그들을 트릭스터로 만드는지 구체적인 설화 <피쟁이 하인>의 서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주인이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하인을 데리고 서울로 간다.
- (2) 주인이 하인에게 음식 심부름을 시키자, 하인이 음식을 더럽혀서 가져온다.
- (3) 주인은 하인에게 더럽혀진 음식을 준다.
- (4) 주인은 하인에게 서울은 눈 뽑아 가는 곳ियो, 눈을 감으면 코도 베어 가는 곳이라고 당부하며 말을 지키게 한다.
- (5) 하인이 주인의 걱정대로 행동하다 말을 도둑당한 것처럼 거짓말한다.
- (6) 화난 주인이 하인을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하인을 집으로 돌려보낸다.
- (7) 집으로 가는 길에, 하인은 여인의 떡보리를 훔치고 꿀장수의 꿀을 빼앗는다.
- (8) 하인이 글을 아는 사람에게 편지의 내용을 바꿔 쓰게 한다.
- (9) 집에 돌아간 하인은 편지의 내용대로 주인집 딸과 혼인한다.
- (10) 집에 돌아온 주인이 하인을 망태에 담아 나무에 걸어 죽이려 한다.
- (11) 하인이 지나가는 남자를 속여, 자신 대신에 망태에서 죽게 한다.
- (12) 하인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용궁 대접을 자랑한다.
- (13) 하인의 말을 믿은 주인집 가족이 용궁 구경을 가기 위해 못에 뛰어들어가 죽는다.
- (14) 하인이 주인집 딸만 붙들어 살린 후 그 집에서 산다.

설화 <피쟁이 하인> 속 하인은 타인을 속이는 행동을 일삼는다. 주인과 주인집 식구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죄없는 여인과 꿀장수 그리고 자신을 도운 사람까지 속여 모두를 죽게 만든다. 설화 속 피쟁이 하인은 표면적으로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인물이다. 이렇듯 선보다는 악에 가까운 피쟁이 하인의 이야기가 어떤 연유로 민중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으며 현재까지 전승될 수 있었을까.

<피쟁이 하인>과 같은 트릭스터담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설화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속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피쟁이 하인은 분명 우리가 그동안 접해오던 이타적인 영웅의 모습이 아니다. 인과응보와 같은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모습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트릭스터담을 오랜 세월 동안 전승해 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트릭스터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신동훈은 트릭스터를 영웅의 존재론과 다른, 또는 ‘성자’나 ‘군자’의 존재론과는 크게 다른 자기중심적 존재론으로 표현한 바 있다.<sup>16)</sup> 사실, 우리 삶에서 영웅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문학을 통해 수많은 영웅을 창조하여 미래의 희망을 찾고 열광하지만, 동경의 대상이라 함은 영웅, 성자, 군자 모두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판타지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권선징악과 인과응보가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자나 군자 대신 창조한 인물이 트릭스터이다. 현실의 부조리함에 지친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의 질서나 윤리, 도덕성을 벗어던지고 행동하는 인물을 창조했고, 그 인물이 피쟁이 하인과 같은 트릭스터였다. 현실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어긋난 행동을 하고, 그것이 오롯이 자신의 행

16) 신동훈, 위의 글.

복과 안위만을 위한 것이어도 상관없는 이야기 속 인물, 평범한 민중들은 이러한 트릭스터를 꿈꾸며 피해가 하인과 방학중을 창조했다. 아마도 현실의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사람들은 트릭스터를 창조하고 전승하며 대리 욕구를 채워나갔을 것이다.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문학 본연의 역할이었고, 트릭스터담도 문학 본연의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서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부정적 존재라면 문학 속에서 트릭스터는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그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욕망은 한국을 넘어 세계에 트릭스터를 존재하게 만들었다. 트릭스터가 가진 매력이 국적을 초월한 것인데,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하인과 방학중이 존재한다면 중국에는 아판티, 베트남에는 꺀이, 카자흐스탄에는 알다르코세가 있다. 아판티와 꺀이 그리고 알다르코세의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중국 한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심씨가 구술한 설화 <욕심많은 바이를 골탕먹인 아판티>이다.<sup>18)</sup>

아판티가 부자인 바이 영감에게 금화 100개를 빌려 2층 건물을 지었다. 바이 영감이 아판티의 2층 방을 뺏고 싶어, 아판티에게 빌려 간 돈을 당장 갚든지 아니면 2층 방을 달라고 했다. 아판티는 2층 방을 바이 영감에게 췌고, 다음 날 친구들과 함께 1층을 허물기 시작했다. 놀란 바이 영감이 집이 무너지겠다고 따지자, 아판티가 1층은 자신의 집이니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2층을 잘 지키라고 했다. 급한 마음에 바이 영감이 1층도 자신이 사겠다고 말하였고, 아판티가 금화 200개를 주면 팔겠다고 했다. 바이 영감은 할 수 없이 비싼 값에 1층도 샀다.

17) 본 연구자는 한국학진흥사업단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설화를 발굴 및 수집하는 연구에 참여한 바 있다. 전국 대상의 이주민 설화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28개국의 134명의 이주민을 통해 설화를 포함한 1493편의 구술담화 자료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의 트릭스터담도 연구자가 연구팀과 함께 이주민 설화 조사 연구에서 직접 채록한 자료이다.

18) 중국 한족 출신인 심씨는 2008년에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처음으로 왔다. 그 후 한국 남성을 만나 결혼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유창한 한국어로 다양한 중국의 설화를 구술하였고, 이 중에 트릭스터담인 아판티가 있다.

중국의 트릭스터 아판티는 부자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가엾은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다. 대신 아판티는 부자를 벌하는 심판자에 가깝다. 우리가 떠올리는 가난한 주인공의 모습은 보통 힘 있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긴 후 하늘의 도움으로 복을 받는 모습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트릭스터담 속 주인공은 하늘의 도움 대신 오히려 역공을 펼쳐 자신의 것을 스스로가 쟁취하고 지쳐나간다. 이처럼 아판티와 같은 트릭스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약자와 소수자의 모습이길 거부하고 대신 묘한 해방감을 전달하며 매력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음은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도씨가 구술한 설화 <거짓말 잘하는 꾀이>이다.<sup>19)</sup> 주인공 꾀이는 한국의 꾀쟁이 하인과 가장 닮아있는 트릭스터이다.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 부부와 사는 꾀이는 사람을 잘 속이는 재주를 가졌다. 꾀이의 소문을 들은 부자가 자신을 밖으로 나가게 해 보라고 하자, 꾀이가 집안에서 집 밖으로 나가게는 못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알겠다고 하며 부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꾀이는 부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했으니 자신이 부자를 속였다고 말했다. 또 하루는 돈이 필요했던 꾀이가 삼촌 부부가 키우던 돼지를 팔았다. 꾀이는 돼지를 팔면서 돼지 꼬리만 남겨 달라고 했다. 꾀이는 돼지 꼬리를 땅속에 묻은 후 숙모가 오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그 돼지를 잡아서 땅 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다. 꾀이는 돼지를 못 가져가게 꼬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숙모는 꾀이가 시키는 대로 돼지 꼬리를 붙잡고 그 사이 꾀이가 땅을 팠다. 땅을 팠는데도 돼지가 없는 걸 보여주면서 꾀이는 이미 돼지가 저 세상 갔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꾀이에게 계속 속은 삼촌 부부가 꾀이를 물에 빠트리 죽이려고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꾀이가 다시 삼촌 부부를 속여서 삼촌 부부를 죽게 하였고 결국에는 왕까지 속여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

베트남의 트릭스터 꾀이는 부모를 잃은 고아이지만 슬픔과 연민 대신 자유로움과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삶을 채우고 최종적으로 왕까지 되는 인물이다. 특히, 삼촌부부를 물에 빠트리 죽이는 패륜적인 행위는 사회적 윤

19) 베트남의 하이퐁이 고향인 도씨는 2010년에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도씨는 베트남의 다양한 설화를 구술하였고, 이 중에 트릭스터담인 꾀이의 이야기가 있다.

리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고 꺾이는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가 오랜 세월동안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패륜아가 아닌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의 트릭스터였기 때문이다. 현실의 삶에서 꺾이와 같은 고아는 삼촌 부부가 죽으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트릭스터담에서 고아 꺾이는 위협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삼촌 부부를 죽이며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즉 트릭스터 꺾이는 장화홍련전의 장화와 홍련, 콩쥐팥쥐의 콩쥐처럼 나쁜 어른에게 힘없이 당하는 불쌍한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강한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존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다르코세도 자유로운 모습으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부자의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는 트릭스터이다.

피가 많고 거짓말을 잘하는 알다르코세가 하루는 어느 부잣집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는 말들이 자는 곳에 가서 자라고 쫓아냈다. 알다르코세는 밤에 부자 부부가 잠든 뒤 집 지붕 위에 올라가 물을 뿌려 부부를 깨웠다. 그리고 귀신 소리를 내면서 부부를 겁주었다. 부부가 귀신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고 묻자, 알다르코세는 사람의 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부부는 밖에 있는 거지(알다르코세)를 데려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다 주고 떠나겠다고 하였다. 잠시 후 원래의 모습으로 나타난 알다르코세는 귀신인 척하며 부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였다. 겁먹은 부자 부부는 도망갔고 알다르코세는 편하게 잠을 잔 후 떠났다. 다음날 집에 돌아온 부부는 알다르코세가 남긴 족지를 보고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트릭스터담인 알다르코세 이야기가 다양한 버전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떠돌이라는 신

20)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가 고향인 라씨는 2005년에 유학생으로서 한국에 왔다.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였고, 카자흐스탄 남성과 결혼하였지만 현재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생활하고 있다. 라씨는 트릭스터담인 알다르코세의 이야기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술하였다.

분에서 알 수 있듯, 알다르코세는 자유로운 영혼의 전형적인 트릭스터이다. 부자의 집을 빼앗은 후 다시 떠나는 알다르코세의 모습에서 트릭스터 특유의 경쾌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에서 전승되고 있는 트릭스터담 속 주인공들은 국적을 초월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트릭스터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편보다 가지지 못한 편에 속한다. 한국의 트릭스터는 상전을 모시는 하인의 신분이고 중국의 트릭스터는 부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가난한 자이고, 베트남의 트릭스터는 부모를 여윈 고아이고 카자흐스탄의 트릭스터는 집이 없는 떠돌이이다. 모두 사회적으로 약자 혹은 소수자 입장의 사람들로,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다. 그리고 트릭스터의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을 극복하는 양상에 있다. 짜증이 하인, 아판티, 꺾이, 알다르코세는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기보다 영리한 꺾로 부당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단지 모면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부당한 상황을 모면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잡은 후 상대방의 것을 쟁취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쟁취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권선징악을 실천하며 삶의 주체자가 되는 이야기가 트릭스터담인 것이다.

한국,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외에도 트릭스터담은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의 <용감한 꼬마 재봉사>, 프랑스의 <장화신은 고양이>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애니메이션과 어린이 동화책 등의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 또한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동화책, 애니메이션 등으로 새롭게 태어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림 1>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트릭스터담<sup>21)</sup>

① 중국의 영화 '아판티'	② 카자흐스탄 애니메이션 '알다르코세'
	

주변 아시아 국가와 달리 한국은 사회의 규범과 윤리에 벗어났다는 평가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폭력적인 서사에 주목하여 트릭스터담을 대중적인 콘텐츠로 재생산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트릭스터담은 전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설화의 한 유형으로, 동서양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그만큼 흥미로우면서도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이야기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영화, 동화책,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다국적의 학습자에게 상호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2. 트릭스터담을 통한 공감교육

각국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며 다름, 낯설, 차이에 주목하는 다문화사회의 경향은 상호문화교육에서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인한 중요한 변화는 문화의 다양성만큼 초국적 이주에 따른 각국 문화의 같음의 발견일 것이다. 탈경계화된 다문화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다름에 대한

21) ①네이버를 통해 이주경제 신문(2018.10.5.)에서 그림을 가져왔다. 기사 제목은 <중국 문화 녹아낸 애니 '아판티의 대모험', 개봉 첫날 119만 동원>이다. ②는 유튜브 채널에서 그림을 가져왔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이주민이 설화를 구술하며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였다.

이해뿐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같음의 발견이고, 이 연구에서는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같음의 발견을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이라 명명하였다.<sup>22)</sup>

그렇다면 설화로 접근하는 공감교육이란 무엇일까. 같음을 바탕으로 한 공감교육은 국적, 인종, 경제 등의 논리로 너와 나를 구분하는 다문화사회의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삶의 차원이란 공시 및 통시적인 관점에서 회노애락으로 채워지는 삶의 이야기를 의미하며,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 상호문화교육 차원의 공감교육이다. 그리고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통된 삶은 각국이 보유한 각 민족의 설화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트릭스터담도 그중 하나이다. 물론, 공감교육을 위해 텍스트로 선정할 수 있는 설화는 트릭스터담 외에도 무궁무진하다. 공통 주제나 공통 제재 그리고 공통 서사의 설화중에서 효행담, 계모담, 인과응보담 등처럼 보편적 주제의 설화는 공감교육을 위한 텍스트로서 충분한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설화 대신 트릭스터담을 가장 먼저 선정하여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을 모색하고자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 1) 왜 트릭스터담인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와 존중은 상호문화교

22) 상호문화교육에는 상호문화감수성, 상호문화능력과 같은 용어가 존재하고 공감교육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기존의 용어를 차용하지 않고, 공감교육이란 용어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친근한 용어를 도입하고자 함이다. 또한 상호문화감수성과 상호문화능력이라는 용어를 쉽게 풀이하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형성이므로, 이에 공감교육이란 용어를 모색하였다.

육의 중요한 목표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로 이해와 존중이라 밝히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는 인류사의 그 어느 때보다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해와 존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마르티노(S. Martineau)가 밝힌 상호문화교육의 기본 원칙을 토대로 트릭스터담이 실현할 수 있는 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한다. 20세기에는 타인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 그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같은 인류에 속하고, 다른 인류나 저급한 인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sup>23)</sup>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의 삶에서 쉽지 않다. 인종, 경제, 학력, 성별 등의 여러 요인을 핑계로 사람들은 서로를 계급화 하였고, 다문화사회의 경우는 국적까지 추가하여 사람들을 계급화하였다.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독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은 국적을 통해 존재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평가받는다. 농촌사회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이고,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이 질문 속에서 수많은 선입견과 편견을 경험하였다고 밝힌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각국의 문학작품 특히, 공통의 주제나 소재 나아가 서사까지 보유한 다민족 설화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설화는 비경제적인 논리로, 즉 설화에 담긴 다양한 주제와 교훈을 통해 각 민족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sup>24)</sup> 예컨대 공통 서사를 가진 세계 광포 설

23) 장한업의 책에서 정리한 마르티노의 이론을 재인용함을 밝힌다.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2017, 134면.

24)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

화를 통해 사람들은 국적보다 서사가 가진 메시지에 주목하며 서로의 갈등을 발견하고 세계인으로서의 우리를 경험한다. 특히, 트릭스터담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설화는 인종, 경제, 학력, 성별 나아가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간으로 사유하게 만드는 힘을 강하게 발휘한다. 트릭스터담은 마치 별거벗은 임금처럼 사람들이 서로의 민낯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욕망, 상처, 치유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함께 교감하게 한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국적을 초월하여 똑같은 주제와 소재 그리고 서사의 설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삶이 닮아있었기에 가능했다. 설화는 이미 인간이 국적, 인종, 성별 등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 삶의 차원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평등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을 똑같은 존재로 인정케 하는 매개체로서 설화를 선정한 것은 사실, 설화가 전승된 근원적 이유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고, 그만큼 합리적인 교육과정이기에도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을 똑같은 존재로서 사유케 하는 텍스트로서 트릭스터담은 그 어떤 설화보다도 효과적인 작품이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트릭스터담은 문명 속 인간이 아닌 인간의 원형적 모습 속에서 공감교육을 실천하는 텍스트로서 탁월하다. 먼저, 트릭스터는 나의 자화상이 되어 이주민과 정주민의 경계없이 모두가 같은 좌절을 경험하고 사유관을 꿈꾸는 존재로 만든다. 설화 속 트릭스터들은 자기중심적 삶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인물로,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똑같은 인간으로서 공감대를 형성케 한다. 그리고 국적을 뛰어넘어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이야기가 트릭스터담이다. 이승민은 트릭스터를 가난해서, 여자라서, 약자라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존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트릭스터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자기 존

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1288면.

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물로 평가한 바 있다.<sup>25)</sup>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은 국적을 초월해, 그리고 이주민과 정주민을 떠나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이며 가장 가지고 싶은 삶에 대한 욕망이고 꿈일 것이다. 특히, 하인, 고아, 떠돌이와 같은 약자가 트릭스터라는 이름으로 보여주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은 이주민과 정주민 구분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적인 삶이며 꿈꾸는 삶일 것이다.

다음으로 트릭스터담은 삶의 상처를 함께 공감하며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텍스트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한국의 트릭스터담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책 등, 제2의 콘텐츠로 현재까지 재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설화 그대로를 재화할 수 없는 이유는 서사가 가진 폭력성 때문이다. 그런데 트릭스터담이 가진 폭력성은 잔혹한 행위로서의 일반적인 개념의 폭력성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트릭스터들은 사회의 규칙과 윤리에서 벗어나 나를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영혼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운데 폭력성을 드러냈다. 물론, 타인을 죽이거나 겁박하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트릭스터담 속 폭력은 민중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표출할 수 없었던 욕망의 실현으로, 설화 속 폭력적 서사는 현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의 의미를 가진다. 표면적으로 폭력적 행위가 사회의 질서와 윤리에 도전하는 병적인 요소 같지만, 사람들은 트릭스터의 폭력적 행위를 통해 안전하게 욕망을 해소하며 건강한 현실의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설화 속 트릭스터의 폭력적 행위가 표면적으로 독과 같지만 사실은 약으로 쓰이는 파르마콘(pharmakon)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인 동시에 약인 파르마콘(pharmakon)의 기능을 트릭스터담 속 폭력적 서사가 담당한 것이다. 독이면서 약인 파르마콘(pharmakon)의 모순적 기능은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에서 트

25) 이승민, 『트릭스터 자기서사 분석과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김선달, 방학중, 정만서 설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면.

릭스터담을 특별하게 만든다. 트릭스터담에서 보여주는 욕망은 국적뿐 아니라 시간의 경계까지 넘어선 사람들의 원형적 욕망으로, 이 욕망은 사람들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힘을 가진다. 효나 권선징악과 같은 도덕적 윤리와 달리 욕망은 사람들이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화두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릭스터담은 학습자가 욕망과 함께 치유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민족의 경계없이 세계인으로서 서로의 같음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 2) 트릭스터담을 활용한 공감교육 방향

트릭스터를 처음에 창조하고 전승했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느꼈을 정서는 다층적이다.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시작으로 하여 트릭스터들의 파격적인 행보는 대리만족에서 나오는 해방감과 즐거움을 전달하였을 것이고, 타인의 희생 속에서 윤리적 번민과 안타까움을 전달했을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정서는 트릭스터담을 통해 경험하는 정서이며, 트릭스터담이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힘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층적인 정서들의 최종 도착지는 위안과 치유이다. 민중들은 트릭스터담을 통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위안과 치유를 경험했을 것이다. 각자의 위치 혹은 입장 등에 따라 다른 지점에서 위안과 치유를 경험했을 것인데, 중요한 점은 세계 공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서 분노와 좌절감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위안과 치유의 정서를 느끼며 트릭스터를 향유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트릭스터담은 폭력적인 이야기이고 반사회적인 이야기이지만, 트릭스터담은 자기중심적 행위를 통해 욕망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나에 대하여 성찰하게 한 설화였다. 트릭스터라는 반사회적인 존재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이러한 과

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위안과 치유를 경험한 것이다.

<그림2> 트릭스터담 속 다층적 정서



위안과 치유는 트릭스터담을 통해 지향하는 공감교육의 최종 방향이다. 삶의 차원에서 동질감을 경험하며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얻는 공감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호문화교육이다. 특히, 트릭스터담은 이주민과 정주민의 구분이 없이 삶의 자유로움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을 공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간으로서 국적 간의 차별과 편견이 없는 상호문화교육을 가능케 한다. 트릭스터담을 통해 학습자 간에 공유하는 공감대가 그들이 경험한 삶에서의 아픔과 상처, 상상 속 삶의 진복, 그리고 성실한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공감은 학습자 간의 정서적 동일시를 바탕으로 하며, 상호문화교육적 접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트릭스터담의 교육적 효과를 쉽게 재단할 수 없지만, 그동안의 문학교육이 수행한 공감교육의 목표를 보면 위안과 치유의 공감교육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은 문학교육에서의 공감교육과 공통점이 많다. 문학교육에서 공감교육의 목표는 작품에 드러난 정서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

는 이질성을 수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인데<sup>26)</sup>, 정서를 매개로 하여, 이질성 대신 서로의 동질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위안과 치유를 형성하는 공감교육은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연구해야 할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일 것이다. 이름은 제각기 다르지만, 세계 각국의 트릭스터를 통해 다층적인 삶의 정서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세계인으로서의 공동체 유대감이 생겨나는 것이 상호문화교육 차원의 공감교육의 교육방향이자 목표인 것이다.

#### IV. 맺음말

아시아 트릭스터담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다름을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현재의 상호문화교육에서 같음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상호문화교육은 매우 낯선 방향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원문화에 대하여 이해한 후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기존의 상호문화교육의 방향이었기에, 같음을 바탕으로 민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호문화교육은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낯섦만큼 공감교육 역시 우려와 비판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능력, 상호문화감수성 등과 같은 기존의 용어를 차용하는 대신 공감교육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모색한 것은 교육 현장에서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함이며 동시에 서로의 문화 속 같음을 발견하는 교육과정의 변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

26) 문선영, 『가치 평가적 사유로서의 공감을 위한 현대교육 방향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55-1, 국어교육학회, 2020, 35면.



리고 상호문화교육을 실현하는 과정과 방향은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카테고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다름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과 달리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감교육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였다.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과 공감교육 만큼 난관이 예상되는 또 하나의 것은 텍스트로 제시한 트릭스터담에 있다. 예상되는 난관 속에서도 권선징악, 효행담 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 속의 설화가 아닌 트릭스터담에서 가장 먼저 공감교육을 모색한 이유는 트릭스터담이 가진 뛰어난 상호문화교육적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의 ‘피쟁이 하인’, 중국의 ‘아판티’, 베트남의 ‘뀌이’, 카자흐스탄의 ‘알다르코셰’는 하인, 가난한 자, 고아, 떠돌이이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대로 행동하지 않고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삶의 주체자로서 욕망을 실현하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트릭스터가 주인공이 이야기는 특히 사회적으로 소수자 입장의 이주민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갈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뿐 아니라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트릭스터담은 분노와 좌절감에서 시작하여 해방감과 즐거움, 그리고 번민과 안타까움 마지막으로 위안과 치유를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정서는 국적과 인종, 성별을 초월하여 모두가 함께 ‘우리’라는 정서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주민과 정주민, 이주민과 또 다른 이주민 사이에서 서로가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케 할 것이다. 즉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선입견과 편견이 존재하는 다문화사회에서 트릭스터담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삶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텍스트로써 상호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트릭스터담 외에도 보편적 세계관을 가진 설화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트릭스터담을 시작으로 하여, 서로의 문화 나아가 삶에 대한

공감을 목표로 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같음을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길을 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에서의 공감교육의 시작이며,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논저>

- 김성진, 『상호문화주의와 세계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4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 김정은, 『이주민 구술 설화를 활용한 상호문화능력 신장의 교육 방안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 김지혜, 『다문화 소설을 통한 상호문화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 한국구비문학회, 2009.
- \_\_\_\_\_,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문선영, 『가치 평가적 사유로서의 공감을 위한 현대시교육 방향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55-1, 국어교육학회, 2020.
- 박성희, 『공감학 어제와 오늘』, 학지사, 2004.
- 선주원, 『상호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과 학습 활동』, 『국제이해교육연구』 12(1),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6.
- 신동훈, 『유럽민담 트릭스터에 비취 본 방학중의 캐릭터 특성 연구』, 『겨레어문학』 51, 겨레어문학회, 2013.
- 신승혜, 『신화를 활용한 결혼이민여성의 상호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오정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 이성희, 『다문화시대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구비문학 읽기』,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 이승민, 『트릭스터 자기서사 분석과 콘텐츠 활용방안 연구: 김선달, 방학중, 정만서 설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임인화, 『공감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6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8.
- 장현정 · 우신영,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위한 소설교육 연구』, 『교육문화연구』 25-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 조영미, 『상호문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문학교육 방안 연구: 대만 대학교의 부전공 과정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79, 이중언어학회, 2020.
- 조인실 · 김세광 · 안지영, 『다문화 공감 교육 실천 사례 연구: 비폭력대화와 회복적 정의를 중심으로』, 『초등도덕교육』 55,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최은숙,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공감’ 양상과 다문화교육적 의미』,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

하은하, 『<피쟁이 하인> 설화의 변형을 통해 본 트릭스터의 순기능과 역기능』,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이 논문은 2020년 12월 24일에 접수되어,  
2020년 12월 29일에 심사를 의뢰하여 2021년 1월 12일에 심사 완료되었으며,  
2021년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수정하여  
2021년 1월 28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 Empathy Education in Asian Trickster Tale-based Intercultural Education

— Focusing on ‘sameness,’ not ‘difference’ —

Oh, Jung-Mi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a focusing on ‘sameness,’ unlike conventional ‘difference-based’ intercultural education, suggesting ‘empathy education.’ ‘Empathy education’ refers to the formation of empathy in which all people are equal under the concept of ‘sameness’ by discovering sameness among different cultures.

To realize this such empathy education, this study covered trickster tales that have been told in the Republic of Korea, China, Vietnam, and Kazakhstan and proposed contents of empathy education to be implemented through such tales. In these tales, a trickster is a character that realizes his egocentric life desire, and at the same time, reforms empatheticity, by treating both immigrants and natives equally. In trickster tales, people share everything. Specifically, they share emotions, such as desire and pain. Such multilayered emotions are experienced through trickster tales, ultimately making people realize that they are all the same with common life goals. In other words, they discover ‘sameness,’ not intercultural differences, through such tales and experience sameness-based empathy.

The search for the meaning and direction of empathy education through trickster tales was to introduce intercultural education based on ‘sameness.’ It is anticipated that such intercultural education focusing on ‘sameness,’ not ‘difference,’ would positively impact an immigrant women-led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Key words: intercultural education, empathy education, difference, sameness, folktale, trickster tale, multicultural education